Piano Concerto No. 19 in F major, K. 459

- □□

정보

Wolfgang Amadeus Mozart:

Piano Concerto No. 19 in F

major, K. 459

개요
곡명: Piano Concerto No. 19 in F major, K. 459
작곡가: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완성: 1784년 12월 11일, 빈
장르: 독주 건반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초연: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1784년 12월 12일 예약 음악회 또는 1785년 사순절 빈 예약 음악회에서 모차르트가 직접 연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확인되는 후대 공연: 1790년 10월 15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레오폴트 2세 대관식 행사와 관련해 연주되었다는 초판 주석이 남아 있다.
초판: 1794년, Offenbach의 Johann André, 악기 파트
구조: I. Allegro, II. Allegretto, III. Allegro assai의 세 악장
편성: 독주 건반, 플루트 1, 오보에 2, 바순 2, 호른 2, 현악

IMSLP: Piano Concerto No. 19 in F major, K. 459 (Mozart)

Wikipedia: Piano Concerto No. 19 (Mozart)

Wolfgang Amadeus Mozart의 Piano Concerto No. 19 in F major, K. 459는 독주 건반과 플루트 ·오보에 · 바순 ·호른, 현악이 세 악장으로 대화하는 협주곡이다 . Allegro는 2/2박자의 협주곡형 소나타 형식으로
시작하고, C장조 Allegretto가 6/8박자의 노래를 가운데에 놓으며, Allegro assai 피날레가 2/4박자의 론도와 푸가풍 대목으로 마무리한다 . 작품은 1784년 빈에서 모차르트가 완성한 여섯 피아노 협주곡의 마지막 곡이며, 그가 직접 연주할 수 있도록 독주부와 관현악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했다.

작곡 ·초연 ·출판의 연대

국제 모차르테움 재단의 Köchel-Verzeichnis는 자필 작품 목록에 적힌 완성일을 1784년 12월 11일로 확정한다. 정확한 최초 공연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PTNA는 완성 다음 날인 12월 12일 예약 음악회에서 연주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Boston Baroque는 1785년 사순절 빈 예약 음악회에서 모차르트가 이 곡을 새 협주곡들과 함께 연주했다고 설명한다. 레오폴트가 빈에서 청중과 오케스트라의 성공을 칭찬한 편지는
남아 있지만, 그 편지로 K. 459의 특정 공연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다.

1790년 10월 15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레오폴트 2세 대관식 행사와 함께 연주되었다는 정보는 1794년 Johann André 초판과 후대 사본의 주석에서 확인된다. 이 공연이 C장조 K. 537의 “대관식 협주곡 ”에
대응하는 “제 2 대관식 협주곡 ”이라는 별칭의 근거가 되었다. 별칭은 1784년의 작곡 목적이나 모차르트가
붙인 원제가 아니라 후대 출판과 공연 전승에서 생겼다.

Johann André는 1794년 Offenbach에서 악기 파트를 처음 출판했다. 1800년과 1803년의 초기 인쇄, 1878 년 Breitkopf & Härtel의 Mozarts Werke, 1965년 Neue Mozart-Ausgabe 판은 서로 다른 전승 단계다. 현대 Schott 판은 모차르트의 카덴차를 포함한 연주용 자료로 안내되므로 Johann André 초판과 동일한
텍스트로 취급하지 않는다.

소요 시간

PTNA는 28분 30초, Schott는 약 30분, 로컬 자료는 약 28-32분으로 안내한다. IMSLP의 평균값은 24분이며, 녹음과 연주에 따라 차이가 크다. 템포, 반복, 카덴차의 길이와 선택이 시간을 바꾸므로 여러 자료가 제시하는 범위를 작품의 일반적인 실연 시간으로 본다.

편성

독주: 건반. 모차르트의 자필 악보는 1788년까지 독주 악기를 특정하지 않는 Cembalo 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 오늘날에는 대체로 피아노로 연주한다.
목관: 플루트 1, 오보에 2, 바순 2.
금관: 호른 2.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더블베이스 .

모차르트의 자필 작품 목록에는 2 clarini timpani 가 적혀 있지만 현존 총보에는 트럼펫과 팀파니 파트가 없다. 목록에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과 별도 파트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함께 논의된다. 국제 모차르테움 재단과 Neue Mozart-Ausgabe는 F장조 협주곡에서 이 악기를 보통 사용하지 않았다는 작곡 관행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 어느 한 가설을 확정하지 않는다.

세 악장의 설계

I. Allegro

제 1악장은 F장조 2/2박자의 협주곡형 소나타 형식이다. 현악이 또렷한 리듬을 먼저 제시하고 플루트가 그 선율을 보강하면서 관현악 제시를 넓힌다. 피아노가 들어오면 독주자는 주제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관의 짧은 문장에 응답한다. 오보에와 바순은 피아노가 쉬는 순간에도 선율을 이어 가며, 호른은 화성의 윤곽을 분명히 한다.

첫 악장의 행진풍 리듬은 밝은 F장조를 공적인 표정으로 열지만, 피아노의 아르페지오와 스케일은 곧 실내악적인 대화를 만든다. PTNA는 이 악장에서 시작 현악을 플루트가 보강하는 점과 목관의 적극적인 사용을 강조한다. 관현악이 긴 서주를 맡고 피아노가 뒤늦게 등장하는 구조는 독주자를 전면에 고정하지 않고 주제의 전달 경로를 여러 악기로 나눈다.

제 1악장에는 모차르트의 자필 카덴차가 보존되어 있다. 초연에서 모차르트가 어떤 카덴차를 선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자필 카덴차와 1794년 초판에 실린 내용, 1965년 NMA 편집판을 하나의 연주 지시로 합치지 않는다.

II. *Allegretto*

제 2악장은 C장조 6/8박자이며, 평온한 자장가를 떠올리게 하는 주제로 시작한다. 피아노와 목관은 주제를 번갈아 노래하고, 중간에 두 짧은 단조 구간이 삽입되어 밝은 표면에 다른 색채를 더한다. 이 부분의 섬세함은 느린 *Adagio*의 정지와 다르다. `Allegretto`라는 표제에 맞춰 반주가 계속 움직이고, 주제의 호흡도 유연하게 이어진다.

Neue Mozart-Ausgabe는 이 악장의 반주를 Ländler풍으로 설명하며, 빠르고 유연한 움직임을 강조한다. 피아노는 목관의 선율을 장식하거나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작은 음형을 주고받아 독주와 합주의 경계를 좁힌다. 단조 삽입부는 긴 비극적 전환으로 확대되지 않고, 곧 C장조의 균형으로 돌아온다.

III. *Allegro assai*

피날레는 F장조 2/4박자의 론도다. 시작의 여린박 동기가 피아노와 관현악을 오가며 반복되고, 스칼라와 아르페지오가 그 동기를 빠르게 확장한다. 피아노의 주제는 가볍게 들리지만, 관현악은 저음과 목관의 모방을 겹쳐 리듬의 질서를 세운다.

중간에는 저음이 받치는 푸가풍 주제가 나타난다. 독주 피아노가 잠시 물러난 사이 관현악이 주제를 서로 모방하고, 곧 론도 주제가 돌아와 빠른 흐름을 회복한다. 이 대목은 완결된 바로크 푸가라기보다 론도 안에 대위법적 에피소드를 삽입한 구성으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하다. 피날레의 즐거움은 대위법을 단순화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치밀한 모방을 빠른 론도의 표면 안에 배치하는 데서 생긴다.

제 3악장에는 자필 카덴차와 `Eingang`이 남아 있다. `Eingang`은 다음 론도 주제로 들어가는 연결구이며, 현대판에서 그 위치와 장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에는 피아노와 목관, 현악이 여린박 동기를 다시 나누면서 밝은 종결을 만든다.

독주 피아노와 목관의 실내악적 대화

1784년 빈 협주곡에서 목관은 색채를 더하는 장식이 아니라 주제를 전달하는 독립적인 파트로 기능한다. K. 459에서도 플루트, 오보에, 바순과 호른이 피아노의 문장을 받아 이어 가거나, 피아노가 쉬는 동안 짧은
주제를 완성한다. Boston Baroque는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으로 피아노와 목관 사이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들며, 편성 자체가 실내악적 청취를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독주자는 빠른 음형을 계속 앞세우지 않는다. 제 1악장에서는 관현악 제시를 다시 조직하고, 제 2악장에서는
목관의 노래를 장식하며, 제 3악장에서는 푸가풍 모방에 참여하거나 잠시 물러난다. 같은 피아노가 세 악장에서 맡는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협주곡의 기교는 음표 수보다 대화의 타이밍과 성격 전환에서 드러난다.

별칭과 연주 전승
“제 2 대관식 협주곡 ”이라는 이름은 1790년 프랑크푸르트 공연을 적은 초판 주석에서 출발했다. 모차르트가
K. 537과 함께 연주했다는 후대 기록은 작품의 수용사를 설명하지만 , K. 459가 대관식 의식용으로
작곡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정식 헌정도 없으며, Neue Mozart-Ausgabe는 모차르트가 자신이 연주할
목적으로 쓴 작품으로 본다. 학생을 위해 명시적으로 쓴 K. 449와 K. 453 같은 협주곡과는 창작 맥락이 다르다

.

카덴차와 Eingang 은 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남긴다. 모차르트는 자신이 연주할 때 카덴차와 연결구를 즉흥으로 만들었고, 가족과 학생을 위해 일부를 적어 두었다. 따라서 자필 카덴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특정 카덴차가 모든 초연과 후대 공연에서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Schott의 “Coronation I” 판, NMA의 Badura-Skoda 판, Johann André 초판은 각각 다른 편집 목적을 가진다.

IMSLP에는 Clara Haskil과 Constantin Silvestri가 연주한 1959년 실황과 여러 후대 녹음이 목록에 올라 있다. 이 목록은 작품의 녹음 전승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각 연주의 해석적 우열을 판정하는 비평은 아니다. Boston Baroque의 기록에는 Martin Pearlman이 1984년 포르테피아노로 연주한 사례도 남아 있어, 현대 피아노와 역사 건반 악기의 음색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주요 자료

Internationale Stiftung Mozarteum, KV 459

Neue Mozart-Ausgabe, 피아노 협주곡 전집 해설

PTNA Piano Music Encyclopedia, K. 459

Boston Baroque, Mozart's Piano Concerto No. 19

IMSLP, Piano Concerto No. 19 in F major, K. 459

Schott, Piano Concerto No. 19 in F major